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되나

정부 16일·제주도는 17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
 내달 설 연휴까지 연기 예상 소상공인들 울상
 “70% 매출 감소에다 친구간 연세 부담 이중고”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되는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설연휴(2.11~14)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소모임 조치도 바로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설연휴를 앞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6주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방역수칙을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모임 금지에 따른 조정 내용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해 16일 발표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다음날인 17일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α’ 조정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14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은 현재 제주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조가 있어 제주에 주어진 정책 범주에서 도민에게 현실적이고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모임 금지에 대한 연장 조치가 예상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소비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한 막대한 영업 손실에다 제주 고유의 품습인 ‘신구간’을 앞뒤 건물 임대료 등 연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어야 할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없어 현장에서는 속만 태우고 있다.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소리를 낼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막막하다”며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장기화로 관광객 감소에 내수 소비부진으로 식당이나 판매점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내 등록업체 11만7000곳 가운데 10만곳(85%)이 소상공인 관련업체로 예년에 비해 매출액이 70% 가량 줄었고 장사가 잘 되는 업종도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은 50%에 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식당 종업원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도 일자리를 잃어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백금닷컴기자 haru@ihalla.com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 설경 최근 며칠새 눈날씨가 이어지면서 설경이 절정에 달한 한라산 선착지 및 일대가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듯 하얀 눈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난대야생대산림연구소 제공

제주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실적 저조

최근 4년 사이 협약체결 13곳 대부분 보류·포기

수도권 등 국내기업의 제주투자유치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활력을 찾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및 독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간 수도권 등 국내기업의 이전·신설 투자유치 실적(MOU 체결)은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 어려운 투자여건 속에서 지난해 3곳과 협약을 체결했

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냐다.

4년 사이 도는 수도권 등 국내 기업 13곳과 이전·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 보류·포기한데다 부지 확보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실제 이행한 기업은 1곳(2017년)에 그쳤다.

더욱이 2017년 이후 신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3년 이내 보조금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약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도는 올해 4년만에 신규로 지난해 신설투자 MOU를 체결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산업통상자원부)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언택트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 유치 웹사이트를 활용해 1:1 상담 및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비롯 해외 무역관과 연계한 온라인 투자 상담을 추진하고,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재투자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BTJ열방센터 39명중 6명 부재 ‘비상’

도민 불안 가중... 13일 이후 코로나 추가 확진 없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제주에 주소록 둔 방문자 39명 중 현재 6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총 39명 중 3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중 25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9명 중 2명은 연락이 닿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명은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찰 보건소로 이관됐다.

이로써 BTJ열방센터와 관련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인원은 총 6명으로 파악됐다. 도는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경찰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즉시 검체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월 확산세와 비교해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가 추축해졌지만 BTJ 열방센터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연달아 발생하는 만큼 집단 감염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마지막까지 진단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서는 14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490명의 가족인 491번과 492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없는 상태다. 또 지난 4일 이후 연속 10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한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오후 5시 기준 9명의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47명으로 파악됐으며 격리해제자는 445명(이관 1명 포함)이 됐다.

한편 도는 제주안심코드를 약용해 동선 추적 교란이나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그동안 제주안심코드는 QR코드 이미지만으로 방문 인증이 되면서 동선 확인 과정에서 혼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태훈기자

주말 제주 다시 추위 16일 기온 뚝... 밤에는 비

주말 제주지역에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토요일인 16일 남하하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5~7℃ 떨어진 3~4℃에 그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도

하루 사이 10℃ 이상 떨어져 5~9℃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이날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 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전날인 15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9시부터 제주 북부와 서부, 동부, 산지에 비가 오고, 한라산 정상 부근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비 또는 눈

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짧은 곳이 있고, 특히 최근 많은 눈이 내린 중산간과 산간 지역 도로는 낮 시간대 녹았던 눈이 밤에 다시 얼어붙는 영향으로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의 미래가치는 환경입니다.
 더이상의 난개발은 멈춰주세요.
 제주의 생태를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의 힘으로 제주의 가치를 지켜냅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가 오면 꼭 "제2공항 반대"를 외쳐주세요.

사단법인 굿자왈사람들